

# 내년 정부 예산 11개 상임위서 13조 순증

### 국회 중간 점검...SOC·농가지원 예산 증액 호남고속철도 277억·지역화폐 2조 등 늘어 법사위, 검찰 특별비 등 유일하게 384억 순감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늘어났다. 21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결핵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을 늘렸다.

특히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기금지원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가 예산 수입의 1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산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0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 늘렸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

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터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국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원, 5천30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정무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을 45억원 가

량 확대 편성하는 등 총 1천288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여야가 검찰 등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놓고 충돌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종료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김동연, '李 사법리스크' 분열 우려 진화

### 李, 연일 민생 경제 행보 어수선한 당 분위기 다잡기 친명·비명 '원팀' 부각 물밑 권력 재편 여부 '촉각'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떡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 경제 행보를 연일 이어가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외의 '단일대오' 부각에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의 전통 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민생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전날엔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가 연일 총출한 민생 경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엔 '떡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실용 노선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5일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엔 비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못골시장을 함께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만큼 이날 시장 방문 계획을 김 지사 측에 알리며 합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고, 김 지사 측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기에 민생 경제 이슈를 고리로 '원팀 대응'을 부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 이후 "이 대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전날 국회를 찾아 '민

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新)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와의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원팀'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의문 부호를 붙이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 대표의 선고에 대응해 한목소리로 대외 공세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언제든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

### 지역기자단 사과·해명 촉구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 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기자단은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수기자

## 문금주 '쌀값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베타목이지만 이날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천872원(8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1만6천408원)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만원 수

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 수급 조절과 사후 피해 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기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